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13)*

금 명 자†

대구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 산하 14개의 학술지에 2000년에서 2013년까지 게재된 통일, 북한, 북한사람, 북한이탈주민관련 연구 전수 50편에 대해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을 확인하였다. 구조적 특성에는 학회지별, 연도별, 연구자별, 연구비 수령기관별 연구수를 확인하였고, 내용별 특성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호칭별, 연구대상자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별, 연구방법별 연구수, 연구주제를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 주제는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남한과 북한 각각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저항과 갈등 요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적응 그리고 예상된 갈등 대처 및 개입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 및 연구주제들에 대한 결과와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고, 종합논의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통일에 대한 저항적 심리적 태도 확인 연구,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의 요구 등 5가지 제안과 심리적 통일과 통합을 위한 한국심리학회의 학문적 경주와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되었다.

주요어 : 한국심리학회, 통일, 북한, 북한이탈주민

* 본 연구는 201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교신저자: 금명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E-mail: mjkeum@daegu.ac.kr

올해 초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말로 통일 여론을 이끌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26,000명(2014, 통일부)이 넘었고,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과 적응은 통일 이후의 적응 표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는 통일 준비의 하나가 될 것이다.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추진해야 하고,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렴된 의견이다. 추진과 대비에 있어 심리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뉴밀레니움 첫째,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이라는 주제로 2000년 춘계 심포지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렇듯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나름대로 통일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식과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심리학회는 1967년부터 연차 학술발표논문집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과학회의 학술지를 통해 연구 업적이 누적되어 왔지만, 북한이나 북한사람, 통일과 관련한 연구들은 2000년에 이르기 전에는 거의 희소하다. 1995년에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려 남북한의 경제심리적 차이나 이데올로기 갈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관련 연구주제는 학회 내외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였다. 실제로 한덕웅 등(1995, 1999)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지각을 확인하여 8가지

사회문제범주와 33개 유형을 보고하였지만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그 시기에 이데올로기 갈등이 여전히 첨예화되어 있었기에 표면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발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한국심리학회의 학술지 차원에서도 2000년 이전에 두 편 정도가 ‘남북한’이라는 주제어로 발표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입국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에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그 이후 각 분과학회별로, 때로는 통합적으로 심포지움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2007년도 연차대회에 ‘양과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통합 심포지움이 있었고, 2008년 연차대회에서는 ‘크로싱-탈북자 및 새터민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개입’이라는 제목의 상담심리학회의 심포지움이 있었다. 물론 각 학회별로 학술지를 통해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고, 포스터나 구두발표들이 연차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흩어져있어 과연 한국심리학회에서는 통일에 대한 준비로 학문적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누적시켜왔는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어떤 연구와 지식이 더 요구되는지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관련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종합할 여지가 없다거나 연구자들의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이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적은 수의 연구라도 2000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심리학회 각 분과학회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에서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사람 관련 연구들을 전수 조사하여 구조적 특성과 내용

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이해와 한국심리학회의 통일에 대한 학문적 준비를 중간 점검하고자 한다. 구조적 특성은 연구 내용과는 별도로 연구의 맥락을 확인하는 항목들로서, 학회지별, 연도별, 연구자별, 연구비 수령별 연구수 등 4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내용적 특성은 북한이탈주민 호칭별, 연구대상자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간별, 연구방법별 연구수 및 연구주제별 내용과 연구수 등 5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표 1).

특히 내용적 특성 중 연구주제별 분석은 4가지 주제- 1)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연구, 2) 남한과 북한 각각이 통일에 대한 저항과 갈등 요소,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적응 과정 그리고 4) 예상된 갈등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과 관련 변인 모색 -로 이루어졌다. 몇몇 학자들이 심리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주제들을 제안하였는데, 정리해보면 4가지로 집약되었다. 2000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에서 차재호(2000)는 통일에 따른 심리적 통합은 심리학자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줄 것이며, 심리학자들이 개입하면 통일에 의한 개인적 상처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통합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은 결국 심리적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에 대한 이해, 남북한간의 갈등적 가치관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갈등해소 방식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심포지움에서 전태국(2000)은 독일 통일이라는 실제적 경험적 증거를 살펴 심리적, 사회적 통합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였고, 김혜숙(2000)은 남한사람들이 갖는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의 이해를, 도종수(2000)와 한성열(2000)은 남북한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전우택(2000)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을 돕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3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남한사람들의 북한이나 북한사람 그리고 통일에 대한 태도나 생각을 확인하는 연구, 남한과 북한의 문화나 가치관의 차이점 연구, 그리고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샘플사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적응관련연구이다. 정병호(2005)는 통일에 대한 중장기 실천과제연구라는 주제로, 남북한의 대량 접촉과 전면적 만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사회문화체계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문화충돌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3개의 다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것들은 남한과 북한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사회문화 비교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과 이들을 접하는 남한 사람들의 적응을 추적하여 남북한 교류 및 접촉 양상 연구, 마지막으로 필연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화이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김명식(2015)도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주제 아래 3가지 영역을 다루었는데, 남북한의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그리고 남북한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연구들은 통일 후 남북한의 혼란을 예상하고 그 해결방법을 준비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1948년 이후 왕래도 없이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 밑에 각기 유지되어 온 국가체제는 다

른 가치관과 생활을 만들었기에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이해 없이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통일의 선례국가로서 독일을 평가할 때,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 아래 1970년부터 서로를 인정하였고, 기본조약을 맺어 인적 왕래와 화물 교류가 이루어졌기에 준비된 통일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일 후유증으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보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2004; 김창환, 양금희, 윤재홍, 2002). 김용민(2011)은 38대1인 남북한 경제력 차이가 좁혀졌을 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느니 만큼 무엇이 어떻게 다른 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통일이나 심리적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남한사람들의 저항이 크다는 문제와 관련된다. 겉으로는 통일 예산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통일에 대한 저항을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나 북한사회,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통합하기 어려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오수성(2001)은 통일 저해요인으로 남한의 반공이데올로기, 북한의 집단 적개심을 지적하였고 이장호(1993)은 적색혐오증 외에 사회적 무관심, 보수적 권위주의 문화, 민족의 비자주적 의식구조, 남북간의 불신, 남한의 체제우월성의 자만심 등을 지적하였다. 2004년 여론조사에서도 통일이 아닌 공존을 택한 남한주민의 비율이 36.4%가 되었었고, 10년이 지난 2013년의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한 남한주민이 23.7%, 그저 그렇다가 21.6%로 보고되어(정은미, 2013), 약 50%의 남한주민은 통일의 필요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러기에 회의적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

러나는지, 무엇에 기인하는지, 어떤 변인에 영향을 주고 받는지 등이 밝혀져야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연구로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 때 생길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게 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중간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전우택(2000)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들어 온 이주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네가지 가치로 정리하였다. 민족적,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와야 할 대상, 통일 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 때 생길 문제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대상, 통일과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대상 그리고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모두를 경험하고 이해한 ‘중간집단’으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할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을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이해함에 따라 통일 이후의 심리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 개입방법과 대처 전략을 확인하는 연구들로서, 서로 다른 문화에 안정되게 적응하는 것을 돕는 문화이해 교육의 방향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신뢰와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연구 주제별 분석은 앞으로 통일과 심리적 통합 관련 연구주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은 관련 연구의 전

반적 동향 이해에 조력하여 현장적용적 요구와 정책적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연구와 경험적 연구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그리고 연구 주제들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던 대로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에서 발행되는 14개 전문학술지의 2000년도에서 2013년까지 발표된 연구들 중 제목과 주제어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 탈북, 새터민이 포함된 연구 전수를 수집하였고, 총 50편이었다.

분석 영역

분석 영역은 구조적 영역과 내용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되었고 표 1과 같다. 구조적 영역에는 발표연대, 발표학술지, 연구자, 연구비 수령기관이 포함되었고, 내용적 영역에는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 연구대상자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기간, 연구대상자가 남주민인지 북한이탈주민인지, 여성, 청소년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을 분류하였고,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 질적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후 다르게 형성되어 온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확인하거나 차이에 관한 연구들로서, 가치관, 성의식, 고정관념 등의 내용과 차이를 살핀 연구들이 포함된다. 대체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람을 비교하여 두 국가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저항 요소

남한과 북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 또는 통일을 방해할 수 있는 태도나 상대에 대한 지각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과정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로, 적응 실태, 우울이나 외상 증상 등의 정신과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적응 영향력, 검사도구의 개발, 정착기간이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응 특성 등이 포함된다.

갈등 대처 및 개입 프로그램

남북한의 필연적 갈등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관련 연구들이 포함된다.

결과 및 논의

표 1. 연구 조사 영역에 따른 포함 내용들

분류 영역	포함된 내용
구조적 영역	년도별 발표수, 학술지별 발표수, 연구자별, 연구비 수령상황
내용적 영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 연구 대상(정착시기별, 발달별, 남/북), 연구방법, 연구주제

구조적 영역

발표 학술지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를 발표한 학술지와 연구수를 표 2에 기술하였다. 한국 심리학회 산하에 15개의 학회, 14개의 학술지가 있지만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가 발표된 학회와 학술지는 각 8개였다. 8개 학술지별로 발표된 연구들은 ‘문화 및 사회문제’가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담 및 심리치료’와 ‘여성’에서 각 10편이 발표되었다. ‘일반’과 ‘사회 및 성격’이 각각 5편, ‘임상’에서 4편 발표되었고, 건강에서 2편, 학교에서 2편이 발표되었다.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문화 및 사회문제’에서는 심리적 통합에 영향을 미칠 남한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들을 확인한 연구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의 확인이나 변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대학생,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처럼 다양한 발달 연령대별 연구, 우울, 외상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 문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척도개발연구, 추적연구, 새터민 상담자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도 연구와 같은 상담 자체에 대한 연구, 질적 연구 등 매우 다양하였다. ‘여성’은 학술지 특성상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서, 정

신건강, 진로, 성과 결혼, 양육 등이 주요 주제였다. 반면 ‘사회 및 성격’에서는 북한사람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인식 등 대개는 북한, 북한사람, 통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지각과 인식을 확인하는 주제로 대체로 일관성이 있었다. ‘임상’에서는 4개의 연구 중 3개가 척도 개발과 관련한 연구였다. ‘일반’은 5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북한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을 다룬 연구 한편 외에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증상과 검사프로파일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학술지별로 발표된 관련연구들을 볼 때, 대체로 심리적 통합에 영향을 미칠 남한사람들의 북한이나 북한사람, 통일에 대한 인식은 ‘문화 및 사회문제’와 ‘사회 및 성격’에서 다루었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개입, 그리고 적응에 미칠 심리적 변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여성’에서 발표되었다. ‘건강’과 ‘학교’는 비교적 발표연구가 적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해서 더욱 기대되는 전공분야이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호소 중 하나가 건강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북한에 있을 때나 제삼국에 있을 때 제대로 건강이나 위생을 관리할 수 없었으며, 정착 적응의 문제가 건강으로 표출된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서(남북하나재단,

표 2. 학술지별 연구 편수

학술지명	문화 및 사회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여성	일반	사회 및 성격	임상	건강	학교	합계
학회명	문화 및 사회문제	상담	여성	일반	사회 및 성격	임상	건강	학교	
발표수	13	10	10	5	5	4	2	1	50

2014a)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은 지원으로 의료지원(39.0%)을 꼽았으며, 경제적 지원보다 앞섰다. 북한이탈주민 178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조사에서도(남북하나재단, 2014b), 약 40%가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하였으며, 남성 중 60%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20% 정도가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혹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로 약 40%가 몸이 아파서 구하지 않았으며, 역시 약 40%가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정착지에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에 의한 학교부적응이 호소되고, 이들을 위한 한겨레 학교가 운영되는 점은 학교심리학에서 관심을 가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학생들과의 통합교육과 이들만의 교육의 효과는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학교생활 적응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4개의 심리학회 학술지 중 관련 연구가 발표되지 않은 학술지, 즉 학문분야는 6개 분야인데,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적 다양성이나 사기나 폭력 등 범죄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문제들,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발달심리학이나 법정심리학 및 산업심리학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개소된 남북하나재단 콜센터의 상담내용에서 제도안내와 주택에 대한 상담 다음으로 약 10%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조영아, 김현아, 2011). 또 상담을 받게 된다면 어떤 상담을 받고 싶은지를 조사하였을 때는 취업에 대한 상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산업 및 조직심리학적 관심도 요구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취업이 되어 직업적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

될 때 비로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취업률과 실업률이 남한주민에 비하여 낮거나 높으며 직업을 유지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남북하나재단b, 2014).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이 30%, 숙박음식업체가 16%를 차지하였고, 교육이나 예술, 스포츠서비스가 5% 남짓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3년 한국심리학회가 1차 통일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을 때 발표했던 독일의 심리학자 Kohr(1994)가 동독 시민들이 서독의 합리성, 경영원리, 경제윤리에 의해서 식민지화되었고, 이는 이등시민이라는 집합적 열등감 콤플렉스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내용의 과정으로 보인다. 우리는 독일의 정치적 통일 이후의 심리적 통합 과정을 보며 미리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산업이나 조직심리학 영역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발표 년도

2000년에서 2013년까지 년도별로 발표된 연구편수들을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있으며 그림1을 통해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 11편으로 제일 많았고, 2004년에 7편, 2009년에 6편, 2005년에 5편 순이었다. 반면 2001년처럼 관련 연구가 전혀 발표되지 않은 해도 있었고, 2004년이나 2010년은 다른 해에 비해 비교적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에서 2013년을 5년씩 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면 첫 번째 구획인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에는 13편의 연구가, 두 번째 구획 5년에는 17편이, 마지막 4년은 20편이 발표되어 점진적인 증가를 보인다. 2000년 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에 꾸준한 증가추세가 나타났고, 역사적 사건으로는 2000

표 3. 년도별 연구편수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편수	3	0	2	1	7	5	2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편수	2	2	6	11	3	4	2

년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방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방문이 있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증가나 국가 정책의 방향은 연구들을 촉진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폭격사건이 있었던 2010년 이후에는 증가 추세의 연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표 년도와 발표 학회지를 관련지어 보면, 2000년에서 2003년에 발표된 연구는 사회 및 성격, 문화 및 사회문제, 그리고 일반에서 발표되었고,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2004년부터 관련연구들이 발표되었고 임상에서는 2009년에 처음으로 관련연구가 발표되었다. 년도에 따른 연구 주제는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나 북한사람, 통일에 대한 인식과 지각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관련 연구는 시기적으로 후발되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적응문제가 표면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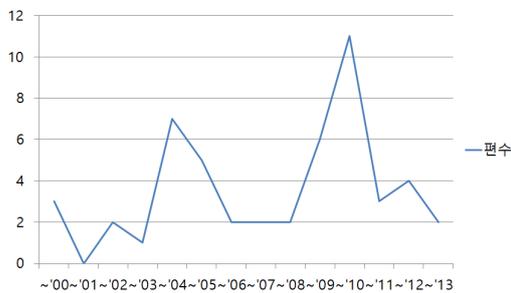


그림 1. 년도별 연구편수

으로 보인다.

연구자

50편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공저자들을 포함하여 53명이었다. 제일 많은 편수를 발표한 연구자는 김희경으로 11편을 발표하였고, 채정민, 조영아는 각각 9편, 8편을 발표하였다. 상위의 세 사람은 일정기간을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희경은 주로 일반과 임상, 여성에 발표하였고, 채정민은 주로 문화와 사회문제에, 조영아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 발표하였다. 김희경은 하나원에 임상심리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임상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채정민은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발표한 연구들로,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심리적 특성 - 예를 들면 자기고양 편파, 상대적 박탈감, 개별성-관계성, 문화이질성, 귀인양식 - 을 확인하거나 남북한주민을 비교하거나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조영아는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 근무하면서 북한이탈 대학생 대상 연구를 필두로 하여 여성과 정신건강 등 대상별 적응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 자체가 적고, 평상시에 교류가 있는 경우어나 겨우 연구에 참여해주기 때문에 이

들처럼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그들과 꾸준한 관계가 있을 때에야 비로서 질문지를 완성하는 등의 연구협조가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면 그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며, 심리학회원들의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개척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비 수령 상황

통일을 비롯한 북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는 개인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실제적 어려움이 있다. 자료를 제공해 줄 북한이탈주민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 제공에도 저항이 있으며, 연구진행에 있어 시간과 경제, 발표 등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이 연구비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주제에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도 있고, 의견도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나 기관에서 연구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발표된 연구 중 어느 정도가 연구비를 수령하여 진행했는지, 수령하였다면 어디로부터 받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가 표 4에 있다. 전체적으로 50편의 연구 중 19편 38%가 연구비를 수령하였다. 그 중 6편은 대학교내의 연구비로 가장 많았고,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5편, 통일부나 교육부 등 정부에서 4편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각각 3편과 1편이 연구비를 받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볼 때, 국가의 주요한 정책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이 수령한 연구비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나 부처에서 수령된 연구비 비율은 더욱 낮았다. 이는 국가가 아직 심리학자들의 심리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학자들의 소극적 연구비 수혜 노력에 기인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는 연구비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심리학자는 통일, 통일 후 심리적 통합,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적응에 대한 적극적 연구비 수령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회 차원에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연구비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 영역

연구 대상자의 호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은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새터민, 북한여성 등 다양하였으며(표 5), 공식적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이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탈북여성, 탈북청소년, 탈북자와 같이 탈북00도 19편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성별이나 연령,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가리킬 때 주로 탈북여성, 탈북청소년처럼 탈북을 붙여 호칭하였다. 새터민, 북한 주민 혹은 북한사람이라는 호칭도 있었고, 북한출신 대학생과 같은 북한출신이라는 호칭도 있었다. 2000년 이후 초기에 주로 탈북, 새터민이라는

표 4. 연구비 수령 연구 편수

연구비 특성	대학교내 연구비	학술진흥 재단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합계
편수	6	5	4	3	1	19

표 5. 북한이탈주민 호칭별 연구편수

호칭	편수
북한이탈(주민, 여성, 청소년)	23
북한출신(대학생)	1
탈북재자, 여성, 청소년)	19
북한(주민, 사람)	4
새터민	3
합계	50

호칭이 사용되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 한 때 새터민이라는 호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이지 않은 용어로서, 다문화가족도 새터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용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자료가 수집된 대상을 말하며,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표 6에는 연구대상이 남한주민인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인가 혹은 양쪽 모두 연구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있으며, 표 8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정착기간에 따른 대상별 연구편수들이고, 표 9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특정집단을 다룬 연구편수들이 조사되었다. 남한사람이 참여한 연구들은

표 6. 연구대상별 연구편수

대상	남한 주민	남한+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	합
편수	6(12%)	7(14%)	37(74%)	50

남한사람들이 북한이나 북한사람에 대해 어떤 지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들로서, 6편이 포함되며 주로 ‘사회 및 성격’이나 ‘문화 및 사회문제’에 발표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발표되었다. 북한이나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이 북한사람에 대한 신뢰나 수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주제였다. 남한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이 동시에 연구 대상인 경우에는 귀인양식, 가치 구조 등과 같은 특정 심리적 특성에 대해 남북한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심리검사 결과를 남한사람과 비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 얼마나 심각하지를 확인하였다. 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고자 통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거나, 개발하고자 준비하는 연구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74%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표 7에는 연구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기간에 따라 연구 편수들을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남한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이 동시에 참여한 연구들과 북한이탈주민 단독으로 참여한 연구들을 합쳐 총 44편을 대상으로 분

표 7. 정착기간에 따른 대상별 연구편수

연구대상	편수
하나원 교육생	10
특정기간 제한 없는 북한이탈주민	26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2년 이상)	2
정착 기간 별 차이 연구	5
재중 북한이탈주민 연구	1
합계	44

석하였다. 44편 중 26편, 즉 59%가 정착기간에 상관없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정착기간이 표시된 연구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원 시절과 같은 정착 급초기 자료가 10편으로 23%이고, 비교적 정착이 된 정착기간 2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2편뿐이었다. 정착기간에 따른 차이를 살핀 연구는 5편이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 정착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연구대상이나 하나원 교육시절에 수집된 자료 대상 연구가 80% 이상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충분히 크지 않으며, 동시에 그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분류는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연구 주제로 제시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표 8에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대학생, 청소년, 여성을 초점으로 진행한 연구들과 남한대학생들을 지목한 연구들이 이에 포함된다. 특정 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여성은 우선 국내 입국수가 남자에 비해 현격하게 많다는 것이 연구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자료 수집 등 연구 진행에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성, 그것도 청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연구 시행의 어려움이 그 이

유이겠지만 더욱더 연구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남아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였다(표 9). 물론 대부분의 연구(45개, 90%)가 양적 연구였고, 5편만이 질적 연구였다. 그러나 양적 연구에 대해서는 그 결과 해석에 주의할 것을 연구자들은 주장한다. 김종남(2007)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왜곡을 탐지,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채정민(2003)과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3)은 북한이탈주민의 기억 회상에 의존한 답변,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결과를 논하기 전에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따지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몇 가지 실제적 어려움이 드러나는데, 우선 이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질문지 내용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해 못하는 용어와 단어도 있으며, 문화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들이 조사에 대한 저항이 있고, 의심수준이 높기 때문에 질문지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은 연구의 신뢰도

표 8. 특정 집단별 연구

특정집단	편수
북한이탈 대학생	1
북한이탈 청소년	4
북한이탈 여성	13
남한 대학생	3
합계	21

표 9. 연구방법

방법	갯수
질적 연구	5
양적 연구	45

와 타당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5편 밖에 되지 않는 질적 분석 연구들은 주제분석 방법, 범주화 주제별 코딩, 내러티브 분석, 현상학적 분석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탈대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이나 여성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 통합교육의 내용, 동료상담자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 대한 경험,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주제

50편의 연구들은 모두 4개의 주제로 구분되었고, 35편의 연구로 전체 70%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관련 연구와 8편 16%를 차지하는 갈등에 대처 및 개입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은 다시 하위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하였다(표 10)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4편의 연구로서, 귀인양식과 가치관 및 성

역할 차이가 연구되었다. 먼저 귀인양식과 관련해서 두 편의 연구가 북한주민과 남한 주민을 비교하였으나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재창과 김영만(2005)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에 비해 내적 귀인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채정민(2006)은 양측 모두 내부 귀인 경향이 높으나 남한 주민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남한 주민은 안정 귀인과 통제귀인, 북한 주민은 불안정귀인과 통제불가능 귀인이 높게 나타났다. 귀인양식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시나리오의 등장인물, 긍정-부정 방향성 등 내용이 두 연구에서 달랐기 때문에 귀인의 내외 방향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할 주제라고 하겠다. 남북의 가치관 비교가 3편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 위계 의식 등 전통적 가치관이 강했다.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은 이중적 가치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바, 이중적 가치관은 사회적 폐해와 개인적 혼란을

표 10. 주제별 연구 수

주 제	하위분류	세분류	편수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4
통일에 대한 저항 요소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적응실태조사		1
	적응관련 변인	적응관련 변인	25
		적응 과정	4
	평가도구 개발	성인용	3
		청소년용	2
변화 전략			3
갈등 대처 및 개입 프로그램	대처 프로그램 개발	남북한주민 통합	2
		북한이탈주민대상	3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정진경(2002)은 북한사람이 사회제도나 공적 조치에 대해서는 성평등적인 가치관을 표명하지만, 남녀의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이나 사생활에서는 매우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정태연과 송관재(2006)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전통적 가치도 높고, 서구적 가치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등 모든 가치관 영역에서 남한의 대학생과 성인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였다.

통일에 대한 저항 요소

3편의 연구가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 및 통일에 대한 거리감을 다루었다. 전우영과 조은경(2000)은 남한의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등과 같은 지배층을 떠올리고, 그들의 공격성을 지각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거리감은 북한에 대한 정보량과 감정이입의 정도 및 긍정적 고정관념을 가질수록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공격적 고정관념은 통일에 중요한 저항요소가 된다. 김혜숙(2000, 2002)은 김혜숙, 오승섭(1999)이 보고한 결과와 그 보다 10년 전의 연구(차재호, 1992)와 비교하면서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정적 신념은 감소되었으며, 동정 정서가 강해졌지만 일상생활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의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고정관념과 같은 신념적 차원보다는 호감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적 차원이 통일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50편의 연구 중 대다수(35편, 70%)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연구로서, 적응 실태조사, 변인별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 연구, 적응 평가도구 개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1편의 실태조사가 발표되었는데, 하나원에 입소한 여성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었다(한인영, 구현자, 오선경, 2010).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탈북과정과 제삼국 체류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가 성폭력과 성과 관련한 사건들이므로 성지식을 확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개입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결과 이들은 비교적 낮은 성지식 수준을 보여주었고, 성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으며, 피임, 생리, 임신, 이성교제 등의 성교육을 희망하였다. 35편 중 25편이 변인별 적응 영향 연구들로서, 자기고양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상대적 박탈감, 문화이질성, 개별성-관계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이 남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류와 CES-D, 로샤, 정신진단검사, MMPI-2 등 심리검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불안, 외상, 방어기제 등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북한이탈여성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결정 수준을 다룬 연구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담에 대한 요구도나 기대를 다룬 연구들도 있었다. 4편의 연구는 거주 기간에 따른 적응과정을 다루었다.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2004)는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이 정착초기에서 정착 2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화-분리-주변화-통합화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태연과 김영만(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경험에 따른 자신과 남한 사람에 대한 평가 변화를 살폈다. 남한

생활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성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은 미약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2005)은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하여 헛수가 지남에 따라 우울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남성과 대졸자 등 학력이 높은 사람의 경우가 해가 지남에 따라 우울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을 질적 분석한 조영아(2012)는 이들이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지며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실과 상처를 확인하게 되는 등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과 도출한 5개의 구성요소를 시간적 맥락으로 배열하여 재결합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시하는 평가도구들이 개발되었다. 5편의 도구 개발연구 중 성인용 척도 3개는 PTSD 척도, 문화적응척도, 간이심리상태검사로를 타당도 검증이 보고되었다. 청소년용 검사는 적응유연성, 심리상태검사 등 2가지가 개발되었다. 이들 척도들은 기존의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과 변화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발된 것들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아직 이들 척도들을 사용한 후속연구가 발표되지 않아 예언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하겠다.

갈등 대처 및 개입 프로그램

8편의 연구가 갈등 대처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로 진행되었다. 갈등 대처 전략으로서 다루어진 연구들은 한집단 범주화, 접촉 경험,

계획된 행동이론들이 활용되었다. 유연재와 김혜숙(2000)은 한집단 범주화를 점화시켜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가 변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한집단 범주화 점화는 북한사람들에 대해 호의적인 감성, 호감도, 특질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집단간 편견감소를 위해 사회정체성 이론에 근거한 재범주화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양계민과 정진경(2005)은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남한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은 직업·진로상담원, 대안학교교사, 후원기과 직원, 대학튜터, 보호담당형사, 사회복지사, 교회신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하였으며, 접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와 연민의 정서가 높았다. 그러나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집단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예를 들면 보호담당형사나 대안학교교사들은 더 부정적이었으며 더 낮은 신뢰와 수용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접촉경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접촉자들의 권위주의 성격과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경향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김금미(2011)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였다. 태도와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에는 편견과 같은 정서의 영향이 컸으며,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의 영향이 컸으며, 주관적 규범도 행동을 예측하는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주관적 규범이 통일 정책 평가나 북한사람에 대한 수용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프로그램은 남북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프로그램과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합 프로그램은 두 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남한사람들의 비수용적 태도나 행동도 기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 프로그램들이 개발, 적용되었다. 한성열 등(2007)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통합으로 4회기 반구조화 집단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고,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신뢰감, 동질성 등이 호전되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달랐다. 즉 거리감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신뢰감과 동질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어 4회기 프로그램의 한계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진경과 조정아(2008)는 새터민과 그들과 가까이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 지원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통합교육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새터민을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 규칙의 존중, 배려, 감정의 조절 등이 제안되었고, 남한주민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가 경쟁사회이고, 노동 강도가 높은 곳임을 지각하여 그들이 겪을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소수자로서의 새터민,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의 재고 등이 포함되었다.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3편이 발표되었는데,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2010)의 셀프과워프로그램, 최현옥과 손정락(2011)의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김승현과 최빛내(2013)의 PTSD 관련 프로그램 이었다. 전자의 강숙정 등(2010)의

프로그램은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적응유연성 등을 확인한 연구이지만 후자의 두 개 연구는 PTSD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었고, 일부의 효과가 있었으나 원하던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종합논의

통일에 대한 심리학회의 준비 기반을 확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0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14개의 심리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북한이탈주민, 북한, 북한사람에 대한 연구 50편 전수를 조사하여 구조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을 확인하여 연구동향을 살폈다. 확인된 결과들을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심리학회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더 많은 연구가, 더 많은 전문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4년간 발표된 연구수가 50편으로, 한 해당 평균 3.6편이 발표되었다. 초기 5년은 2.6편, 중간 5년은 3.4편, 마지막 5년은 5편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의 수와 정치역사적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심리학회의 분과학회에서 발행되는 14개의 학술지별 발표수를 확인하였을 때는 8개의 분과학회 학술지에서 발표되었고, 그 중 문화 및 사회문제, 상담, 여성심리학회에서 비교적 많이 발표되었다. 문화 및 사회문제와 사회 및 성격에서는 주로 남한 주민의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지각, 남북한의 문화와 가치 차이가 다루어졌고, 상담과 여성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야 하며, 더 다양한 분과학회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호소 중에 건강문제, 법률문제, 교육문제, 직업과 취업문제가 다수를 차지함을 염두에 둔다면, 적은 수의 연구를 발표했던 건강과 학교심리학회, 아직 관련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던 산업과 조직, 법정, 중독심리학 등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연구 촉진을 위해 심리학회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모두 53명이었으며, 연구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지만 참여연구자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관련 주제의 연구를 비교적 많이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하나원과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특정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된 연구들은 19편(38%)이었고, 통일부나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관련 공공기관의 연구비는 그 보다 적었다. 앞에서 관련연구들이 보다 많이 발표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원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는 심리학회 차원에서 통일이나 심리적 통합, 북한이탈주민 등의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내외 심포지움의 개최, 관련 공공기관과 공조한 연구사업과 홍보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심리학회 회원이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끄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3.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통일에 대

한 저항적인 심리적 변인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심리적 통합까지 이루어야 하는 통일에 있어 심리학에 4개 주제 연구들이 요구되었는데, 현재 심리학회에서는 남북한의 심리문화적 차이 연구와 통일에 저항적인 심리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조사된 햇수의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자료의 타당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귀인양식과 성의식, 전반적 가치관의 차이가 비교되었는데, 더 많은 주제의 사회문화적 차이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통일의 저항적 요소의 변화와 변화요인들이 확인되어야 통일의 속도와 통일 이후의 혼란에 대해 심리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연구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남성과 청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와 정착 기간에 따른 적응의 변화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5편, 70%의 연구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적응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나, 대상이 주로 여성이 집중되어 있었고, 정착기간에 대한 지정이 없었다.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겠지만 이에 대한 극복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가 빈번하게 호소되는데는 남성의 적응과 취업문제가 기저에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들 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을 고려해보면 이미 10년이 넘은 정착기간에서 최근에 정착에 이르는 과정연구가 가능해보인다. 정착기간과 문화적응유형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U자형 적응모델이 제안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는 연구 등 폭넓은 주제가 가능할 것

이다.

5. 갈등과 혼란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서, 심리학의 기초와 응용분야의 연계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남한 주민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주장에 대해 유연재와 김혜숙(2000)은 한집단 범주화를 통해, 양계민과 정진경(2005)은 접촉을 통한 변화를 살폈으며, 5편의 프로그램 효과연구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변인과 현장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심리학적 연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심리학의 기초 영역에서는 인식 변화에 대한 변인연구를, 응용분야에서는 이를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져서 연계성 실현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북한, 북한사람, 북한이탈주민, 더 나아가 통일과 관련한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 동향을 5가지로 요약하면서 연구주제와 심리학회의 대처를 제안하였다. 다만 2000년 이후 14년간의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심리학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조사되거나 학회 학술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심리학회지 연구동향이라는 본연구의 주제에 제한점이 된다. 2000년 이전에 발표된 연구수가 적으며, 심리학회 학술지 외에 발표된 연구들이 경험적 연구보다는 주장적 논리글이 대다수라는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여 연구동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제한점은 연구주제 분석들을 연구자가 기존의 연구들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연구주제들을 종합하여 4개의 주제로 정리하여 마련하였

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다른 조망으로 분석되면 다른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통일과 심리적 통합이라는 심리학의 대사회적 책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새터민 심리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73-706.
- 강차연 (2005).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 1, 61-80.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금명자, 김은경, 김현아, 조영아, 전연숙, 윤상석 (2009).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활동 매뉴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금명자, 조영아, 김현아 (2011). 북한이탈주민 종합콜상담센터 운영효과성 평가, 정책연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김금미 (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16.
- 김명식 (2015).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13, 1, 555-562
-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탈북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533-548.
- 김영경, 김현아 (2009).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81-1009
- 김용민 (2011). 한반도 통일의 모범이자 반면 교사로서의 독일통일. 독일문학, 120, 309-324.
-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2004). 갈등을 넘어 통일로-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
- 김은경, 권정혜 (2009).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61-781.
- 김종남 (2007). 북한이탈주민의 자기보고는 시뮬할 수 있는가?, 심포지움: 양과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 발표논문집, 86-87.
-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CES-D와 로사 검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41-61.
- 김창환, 양금희, 윤재홍 (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패분석, 통일부 용역과제.
- 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25-46.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115-133.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 오승섭 (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김희경 (2010a).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 3, 311-329.
- 김희경 (2010b).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55-173.
- 김희경 (2012a). 탈북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35-558.
- 김희경 (2012b).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4-1022.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07-724.
- 김희경, 신현균 (2013).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21-541.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 김희경, 정진용 (2010). 탈북 여성에서 MMPI-2의 진단적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335-353.
- 남북하나재단 (2014a).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14b). 2014 북한이탈주민 사회조사, 남북하나재단.

- 도종수 (2000).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비교, 한국심리학회춘계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93-114.
- 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이문화권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47-163.
- 신현균, 김희영, 임지영 (2010). 북한이탈주민 용 간이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777-798.
- 오수성 (2001). 통일한국과 심리적 화합, 심리과학, 10, 1, 1-17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487-518.
-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93-718.
- 이장호 (1993).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통일과 심리적 화합: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125-133.
- 이재창, 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41-66.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춘계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67-92.
- 전연숙, 강혜영 (2009).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방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수준: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09-425.
- 전연숙, 강혜영 (2010).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69-487.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전태국 (2000).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한국심리학회, 115-130.
- 정병호 (2005). 남북한의 이질적 근대화 경험과 미래사회 문화 통합을 위한 중장기 실천 과제 연구,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한양대학교.
- 정은미 (2013).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변화, 5, 2, 74-102.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정진경, 조정아 (2008).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487-518.
- 정태연, 김영만 (2004).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남한과 자

- 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61-81.
- 정태연, 송관재 (2006).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관단에서의 이중성: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3), 49-68.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영아,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2004). 북한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차재호 (1992).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의 태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 보고서.
- 차재호 (2000).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한국심리학회, 1-18.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북한연구 방법론. 한울 아카데미, 329-330.
- 채정민 (2006). 북한이탈주민의 귀인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3), 1-22.
- 채정민, 김종남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채정민, 이종한 (2004a).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93-814.
- 채정민, 이종한 (2004b).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79-101.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 최빛내, 김희경 (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최윤경 (2007). 로샤검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방어성, 심포지움: 양파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논문집, 88-89.
- 최윤경, 김종남, 채정민 (2009). 로샤검사에 나

- 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4). 507-528.
- 최현옥,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469-482.
- 한덕웅, 강혜자 (1999). 한국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각: 1994년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집, 225-229.
- 한덕웅, 최훈석, 강혜자, 이경성, 박군석 (1995). 한국 사회문제의 지각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 1, 99-111.
- 한성열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한국심리학회춘계심포지움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131-153.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양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33-54.
- 한인영, 구현자, 오선경 (2010).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실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여성, 15(1), 87-102.
- Kohr, H-U. (1994). 독일 통일에서의 심리적 문제, 이장호, 이춘재(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49-77,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1차원고접수 : 2015.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3. 16.
최종게재결정 : 2015. 06. 11.

**The Trend of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n,
North Korean Refugee, and Unification in Korean Psychology:
Analysis of researches in 14 Korean Journals of Psychology(2000-2013)**

Myoung Ja Keum
Daegu University

By analyzing all fifty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topics on the Korea Unification, North Korea, North Koreans, North Korean refugees in fourteen issues of the Korean Journals of Psychology published in the last 14 years (2000-2013), this study identifies the research trend and preparedness for Korean Unification of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KPA). The research was analysed by structural and conten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tructural features, the study identified the numbers of research by publication issues, years of publication, and sponsoring institutes and in terms of content features, this study identified the number of research and research subjects by the usage of the word, "Korean refugee", target research subjects and by the North Korean refugees' durations of their stay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by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difference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cultural values, resistant factors against the Korea Unification,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dapt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the potential conflicts after the Unific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analysis results and follow-up discussions by structural and content features of the published articles and by this comprehensive evaluation, this study provides proposals on future policies and competitive research projects of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for the Korea 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 five proposals on the research topics including the difference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cultural values, resistant factors against the Korea Unification,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Key words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North korean refugees, Korea Unification

부록: 연구주제 분류에 따른 연구 목록표

주 제	하위분류	세분류	편수	연구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4	이재창과 김영만(2005), 정진경(2002), 정태연과 송관재(2006), 채정민(2006)
통일에 대한 저항 요소			3	전우영과 조은경(2000), 김혜숙(2000, 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	적응실태 조사		1	한인영, 구현자 및 오선경(2010)
	적응관련 변인	적응관련 변인	25	강차연(2005), 김영경과 김현아(2009), 김종남, 최윤경 및 채정민(2008), 김희경(2010a, b), 김희경(2012a, b), 김희경과 신현균(2010), 김희경과 오수성(2010), 김희경과 정진용(2010), 신행우 외 4인(2004), 전연숙과 강혜경(2009, 2010), 조영아(2009, 2012), 조영아와 김현희(2010), 조영아와 전우택(2004), 채정민과 김종남(2004), 채정민과 이종한(2004a, b), 채정민과 한성열(2003), 최빛내와 김희경(2011), 최윤경, 김종남 및 채정민(2009)
		적응 과정	4	금명자, 권혜수 및 이희우(2004), 정태연와 김영만(2004), 조영아, 김영희 및 유시은(2009), 조영아 외 3인(2005)
	평가도구 개발	성인용	3	김은경과 권정혜(2009), 신현균, 김희영과 임지영(2010), 윤여상, 김현아 및 한선영(2007)
		청소년용	2	김현아, 조영아 및 김연희(2012), 김희경과 신현균(2013)
갈등 대처 및 개입 프로그램	변화 전략		3	유연재, 김혜숙(2000), 김금미(2011), 양계민과 정진경(2005)
	대처 프로그램 개발	남북한 주민 통합	2	정진경과 조정아(2008), 한성열 외 4인(2007)
		북한이탈 주민대상	3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2010), 김승현와 최빛내(2013), 최현옥과 손정락(2011)